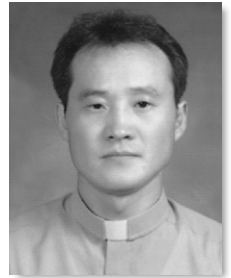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별’은 언제나 내 마음에

이상영 그레고리오 신부
무태성당 주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이사 60, 1-2)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公顯)’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유다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넘어 인류 모두에게 드러나고 주어짐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 축일을 맞이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빛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복을 말하고 들으면서도 무엇이 복인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똑같은 별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과 헤로데와 종교 지도자들이 본 별은 분명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와 종교 지도자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드러나셨지만 모두가 다 같은 반응과 응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엉뚱한 별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예 거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여러 별 중에 하나이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별의 의미를 알면서도 찾아나설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들을 구세주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들 마음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신 주님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별을 따라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생명의말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참조
이사 60,1-6 에페 3,2,3나.5-6 마태 2,1-12.



종교 자유, 평화의 길

새해의 시작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안정과 번영, 특히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프게도 지난 한해는 박해와 차별, 그리고 폭력과 종교적 불용의 잔혹한 행위들로 얼룩졌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시리아 예법 천주교회인 이라크 바그다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주교좌 성당에 가해진 잔인무도한 공격으로 당시 미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사제 2명과 신자 50여 명이 사망한 참사가 생각납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목숨을 내걸지 않는 한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 자유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뿌리박고 있으며, 도덕적 자유의 근원입니다. 종교 자유가 부인될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인간 존엄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정의와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각 사람은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공공장소에서나 사적인 곳에서나, 가르침으로, 행동으로, 출판물로, 예배로, 전례 의식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고백하고 천명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 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충실히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존엄은 축소되고 훼손되어, 우상들의 지배, 절대화된 상대적 선들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될 위험에 놓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를 각종 정치적 이념적 전체주의의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체주의는 공권력을 강조하는 반면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마치 잠재적인 정적

인 것처럼 비하하고 규제합니다. 폭력으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종교를 거부하는 사회는 하느님과 개개인에게뿐 아니라 그 사회 자체에도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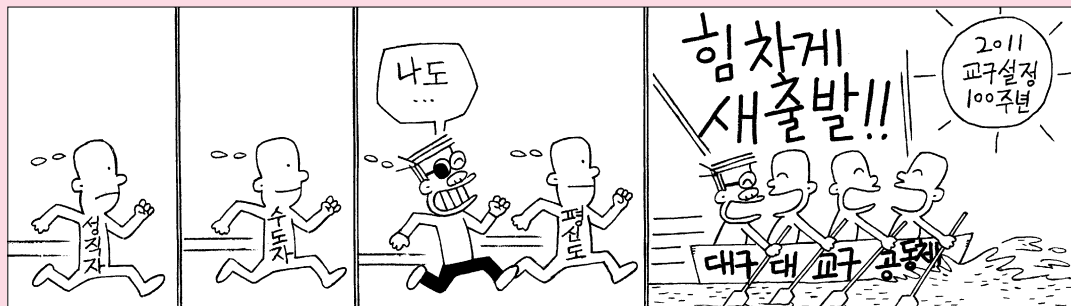
종교 자유는 건전한 정치 문화와 법률 문화가 이룬 업적이기도 하며, 종교인들만의 배타적인 유산이 아니라 지구촌 가족 전체의 유산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이 나누는 대화는 교회가 공동선을 위하여 모든 종교 공동체들과 협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회 자신은 모든 종교의 옳고 거룩한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종교에 기초한 박해, 차별, 폭력과 불용의 행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종교 자유를 촉진하고 상호하기 위한, 특히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종교 자유는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군사적 경제적 패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만적 계략이나 간교한 조작의 결과는 더욱 아닙니다. 그보다 평화는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참여하는 정화의 과정과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고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종교 자유는 심각한 불의와 물질적 도덕적 빈곤에 직면해서도 정의와 평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지상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 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회가 하루빨리 평화의 길인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12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우리 모두 함께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주님 공현 대축일

입당성가

485 동방에 나타난 별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08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파견성가

487 동방의 세박사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믿고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무슨 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 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좋을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해결해 주시기를만 바라지 않는지요? 그러나 시편은 주님께서 당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반기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기 보다는 그분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좌절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명령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를 위해 당신 외아드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에 기대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저 회당장처럼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하고 청해야 합니다. **베냐**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아버지 마음



어느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딸은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퍼부어서 아버지를 찢쩍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산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을 딸에게 읽어주니까, 딸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느님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느님도 자기 아들이라면 제물로 바치지 않을 거면서!” 아버지는 딸이 무언가 심오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얘야,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정말 산 제물로 바치셨단다. 너를 위해서.”

- 율겨은 글입니다 -

100주년 홈페이지
www.100-years.or.kr
100주년 트위터
twitter.com/renew2011
100주년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new2011
오픈: 2011년 1월 10일(월)

- 행사 / 모임 -

폐제기도회

일시: 1.8(토) 20:00, 삼덕 젊은이 성당

2011년 교구 사회복지 신년교례회

일시: 1.8(토) 15:00~17:00

장소: 교구청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가톨릭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본당위원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생령사랑나눔 대축제

일시: 5월 7일(토), 8일(일) 양일간

장소: 교구청내 운동장 및 대강당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바자회 참여 개인, 본당, 단체 모집

문의: 생령사랑나눔 운동본부 253-9991

- 성소 / 피정 -

조이플 스테이

1박2일 머물다 가는 기쁨!

대상: 미혼여성 개인피정(수시신청가능)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문의: 010-9056-9005

※ 토, 일 또는 평일 하루도 가능

2011 호산나 겨울대피정

일시: 1.7(금)~9(일)

장소: 서울 삼선산 청소년 수련관

대상: 청소년, 청년(회비: 5만원)

문의: 삼선산성령수녀회 010-6558-3452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14(금) 14:00 ~ 16(일) 16:00

대상: 성령에 관심 있는 모든 젊은이

접수: myungkkot@hanmail.net

※ 피정자는 사전메일로 접수바랍니다

문의: 010-5490-5345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생활체험피정

주제: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일시: 1.14(금)~16(일), 전남 장성군

문의: 작은형제회(조수만신부) 010-9890-8809

- 모집 / 교육 -

오르간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학산 야간학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월~3월

대상: 중, 고등학교 미졸업자

과정: 중, 고등 검정고시대비

교육비: 무료(교재 본인부담)

문의: 학산 복지관 634-7230

요한바오로2세 어린이집 원아모집

대상: 발달 지연된 장애유아 1세~7세

교육비: 전액 무료

문의: 627-4006

9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2.26(토) 출발(8주,12주)

3차 3.26(토) 출발(8주,12주)

문의: 대구광역시청청소년수련원 593-1273

※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실바니아 대학 제휴

유학시 학점인정, 1년 내 석사학위

자녀유학시 경비지원, 무료어학연수기회

전화: 526-0111(http://tesol.cu.ac.kr)

장례지도사 자격시험(7월) 취업교육생모집

개강: 3.2(수)

내용: 취업전문반/자격취득반/남여중증/

연화염/종교염/꼬갈염/장례도우미반

본당선종봉사자 1박2일교육: 매월셋째주 토, 일

문의: 대가대평생교육원 526-3413-5

제31차 수도생활 체험학교

일시: 1.27(목)~30(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2이상-관32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54-970-2000/ 010-8353-2323

여대생 기숙사 안내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종교 무관)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 직원 채용 -

반야월 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 사용 가능한 신자

제출서류: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1.7(금), 문의: 962-0021

가리마스간병회 간병사 모집

문의: 010-6482-4779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교회 월례미사	1월 3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월 6일(목) 오후2시	성모당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3일(월) 오전11시	신명성당	미바회 미사	1월 7일(금) 오후2시	성모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3일(월) 오전11시	성동프리텔 413호	성모의 기사회 미사	1월 8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내 수도원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3일(월) 오후7시30분	꾸르실리교 교육관	푸른군대 첫 토요일미사	1월 8일(토) 오후2시	성모당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5-8
서울 -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라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 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정귀선 (호노리아)

소아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ji.com
근본치료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락, ADHD
✔ 난치성 아토피
✔ 연어발달장애, 지체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한의학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 한의학과외교수
☎ 592-1275, 593-1275

수맥 훑(돌)침대
대표전화: 1588-5335
21주년 공장직판
수맥지도 임 응 승 신부님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맑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아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신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맞은편)
대표이사장 영 일 (그라산도)신부